

# 컬러시대의 새 문화 일궈내는 '색채 이미지'

생물학적 · 사회심리학적 · 산업적 영역의 다양한 시각으로 풀이

콜라는 '시원함'보다 '즐거움' 감정을 강조한 음료, 고칼로리 콜라는 흰색의 빨강색 용기에, 저칼로리 콜라는 흰색의 면적을 늘린 밝은 빨강색 용기에 담겨 세계인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색채전문가들은 이 진한 갈색의 음료가 전세계 음료시장을 오랜 기간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포장디자인과 색채에 있다"고 분석한다. 제대로 선택된 포장 색채는 소비자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1차적 판촉자라는 것. 색채는 이제 '컬러시대'를 걷는 현대 산업사회에 핵심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이 시점에서 색채의 영향력 및 활용 국면을 다룬 책이 대거 등장한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 색채와 인간과의 관계 풀이

《색채심리》(파버 비렌 지음, 김화중 옮김, 동국출판사) 《우울한 블루, 그리운 파랑》(박영수 지음, 새길)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하용득 지음, 명지출판사)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권은숙 지음, 웅진출판) 등 네권의 책은 색채와 인간과의 관계를 다양한 영역에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의 색채 심리학자 파버 비렌은 《색채심리》를 통해 "색채가 정신병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 생리학적 요인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효과가 급속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선 색채치료법이 유행했다.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헤르메스트리스메지스투스라는 학자가 남긴 파피루스가 그것을 증명한다. 헤르메스는 그 문서의 전편을 통해 각 장의 제목, 질병의 명칭 및 질병의 처방 등을 모두 빨간 잉크로 선명하게 기록했으며, 처방할 약의 중량과 1회 복용량도 대개 빨간 잉크로 적었다. "녹청(구리에 생긴 초록색의 녹)으로 만든 연고를 써라! 그 다음엔 초록 연고를 써라!"는 처방을 비롯, 빨간 잉크에 염소기름과 꿀을 섞은 것은 진정제이며, 변비에는 빨간 비누나 흰 비누를 먹으면 낫는다고 기록했다. 파버 비렌은 헤르메스가 색채치료법을 시도한데 대해 "색채의 처방이 연금술의 한 부분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색채가 빛과 관련된 절대유일의 신성한 실재(實在)에 따라 생겨난 것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한편, 《색채심리》는 색채가 병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한다. 한 예로

색채는 이제 현대 산업사회의 핵심이다.

색채의 영향력과 활용 국면을 다룬

책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출간된 《색채심리》와

《우울한 블루, 그리운 파랑》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등은 색채와 인간의 관계를

생물학적 · 사회심리학적 혹은

산업적 영역의 다양한 시각으로

풀이하고 있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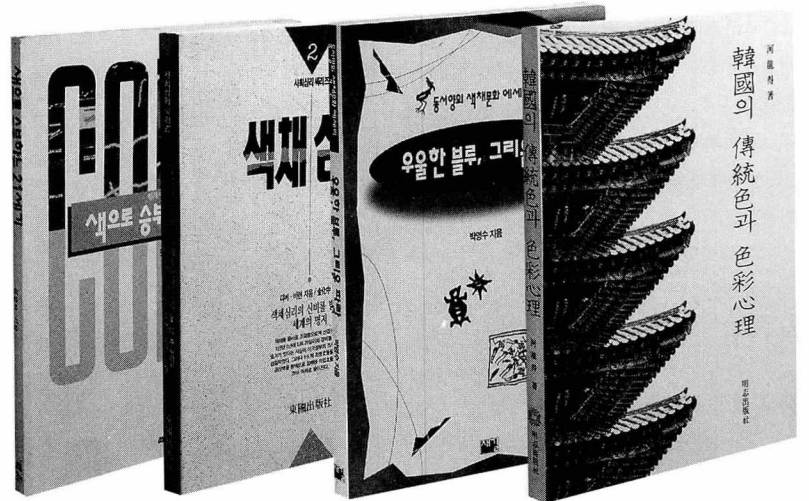
색채치료를 시도했던 도이취는 숨쉬기가 거북하며 늘 발작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던 한 환자를 온통 빨간색으로 뒤덮인 방에 두었다. 환자는 그 방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후로 불면증이 없어졌다고 한다. 파버 비렌은 "지하 감옥의 벽을 붉은 색으로 칠하면 죄수가 미쳐버린다"는 옛말의 진위를 가리느라 자신의 방을 붉은 색으로 칠했다. 창문에는 붉은 유리를 끼우고 붉은 커튼을 드리웠으며, 전구까지도 붉은 색으로 갈아끼웠다. 그러나 몇주일 지내는 동안 주위가 온통 붉은색 투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기분을 "매우 안락하고 유쾌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냈다.

## 색채문화에 따라 다른 각국의 풍습과 상징

학문적인 영역이 강조된 《색채심리》에 비해 《우울한 블루, 그리운 파랑》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는 각 문화권마다 다른 색채문화 이야기다.

최근에 출간된 《우울한 블루, 그리운 파랑》은 "색깔에도 감정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색채문화에 따른 각국의 풍습 및 상징문화를 22가지 테마별로 구분한 에세이. 테마는 성격 · 심리 · 모자 · 옷 · 음식 · 보석 · 성 · 결혼 · 미술 · 자연 · 동식물 · 인체 · 인종 · 종교의 세계로 나뉜다.

저자 김영수씨(36)는 "검은색 또는 흰색을 상복 색깔로 정한 것이나 유니섹스의 상징으로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즐겨 입는 것은 '색깔 공동 문화'의 대표적 예이고, 한국 · 중국 등에서는 노란색이 존귀의 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색깔 차이 문화'의 한 예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왕관을 버린 사



'색채' 의미를 부각시킨 최근의 도서들.

랑'으로 유명한 심프슨 부인이 '심프슨 블루'라 하여 원저공을 처음 만난 날 입었던 파란색 옷을 죽는 날까지 입은 것이나, 채만식이 '붉은 딱지 책' 때문에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된 것 등 '수많은 색깔있는 사연'이 동서양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색채문화가 발달하게 됐다는 결론까지 끌어낼 수 있다.

이 책이 동서양의 문화를 포괄한 데 비해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는 영역을 좀더 좁혀서 한국의 색채문화만을 다룬다. 주목할 내용은 우리 민족이 색채문화에 관한 한 '정색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 대양승배의 표현으로 분석되는 백의민족이 백색 옷의 순수성을 전승하면서부터, 또 음양오행사상에 의한 정색상용의 관습이 생기면서부터는 백색이 아닌 다른 색은 천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전한다. 이로 인해 백색중심의 문화가 다양한 색채문화의 부재를 낳았다는 진단이다.

## 색채의 통합적 사고와 활용 필요

동서양의 다른 색채문화, 인간의 심리와 색채와의 관계, 색채의 기능성 등은 현대로 올수록 산업과 밀접한 짝을 이룬다. 이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한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는 색채에서 풍겨오는 감정 및 색채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제품개발, 생산, 유통판매에 관련해서 색채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CIPD 개발전략이다. 동일한 제품 이미지를 지닌 제품군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하는

내용인데, 이같은 제품디자인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동질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물론 '색채'이다.

생산자에게 동일한 색채 사용과 마감처리로 경제적인 생산을 가능케 해주고, 유통판매업자에게는 동일한 이미지와 색채를 지닌 제품으로 효과적인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소비자에게는 사용환경을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게 해준다. CIPD의 도입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부드러운 연두빛 색채를 사용한 여성용 면도기를 선보이고 있는 네덜란드의 필립스사도 철저하게 이를 적용하고 있고, 독일의 브라운사도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와 흑백의 간결한 이미지를 강조한 정밀한 색상, 흑백의 디자인으로 성공을 거뒀다.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를 쓴 권은숙씨(34,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색채의 영향은 산업디자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간생활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도 감안해 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면 도시환경도 색채조화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색채문화를 열어가기 위해선 색채 전문가들의 역할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색채를 선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색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듯싶다. 색채전문가는 이들 책을 통해 현대 산업사회에서 "진정 '색채혁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배은희 기자